

# 현대 수묵의 두 시선

## 필묵변혁

### 몽무남 | 양항배

기간 2023. 11. 28. 화 ~ 2024. 1. 14. 일

장소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전관

작품대여 국립현대미술관 TOTAL MUSEUM 전북도립미술관  
 관암대학교 박물관 GONGJANGMUSEUM, ART 호신화랑

주최·주관 **세종문화회관**

협찬 FUJIFILM NOROO 노루페인트 **세이모레퍼시픽재단**

에이저 **세종문화회관 위에프 인터파크**

티켓 성인 5천원·청소년 3천원·어린이 2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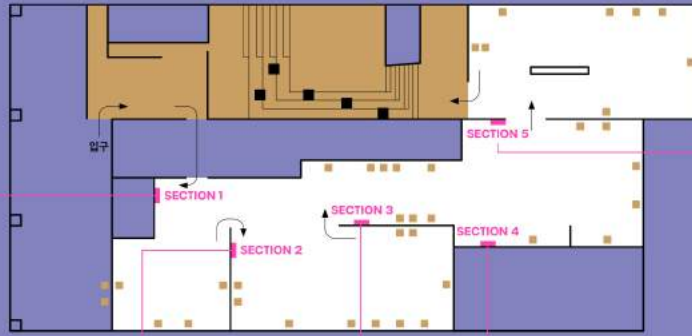
문의 02-399-1000 www.sejongpac.or.kr

### 전시 연계 교육 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명	진행	일시	장소	회당 인원	참가비
특별 교육 (오감 수묵)	오가, 몸짓에서 수묵을 보다	신아영	2023.12.5(화) 19:00	미술관 내	12명	3만원
	성양봉 명상, 수묵의 소리를 듣다	서홍	2023.12.17(일) 11:00 / 14:00	미술관 마루	20명	3만원
	조형, 향에서 수묵을 만나다	루이스 네프	2023.12.16(토) 14:00		10명	5만원
	다도, 수묵의 우리남을 맛보다	다심환	2024.12.19(화) 11:00	미술관 2관 로비 교육실	10명	3만원
	수묵화, 한지 위 수묵을 느끼다 *어린이 대상	다디름 작업실	2023.12.3(일), 12.23(토), 2024.1.9(토) 각 날마다 10:30-12:00 / 13:00-14:30		8명	3만원
상설 체험	수묵 카드 만들기			미술관 2관 로비 교육실		5만원
	나만의 떠 채갈리 만들기	상시			제한 없음	3천원

- 전시 기간 중 한국화 작가 및 관련 연구자 초청 강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초청 강연 관련 세부사항 및 교육 프로그램 예매 방법은 세종문화회관 홈페이지 참조 바랍니다.
- 모든 프로그램 시간 및 장소는 현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F



#### SECTION 1. 송수남-황창배

송수남과 황창배 회화를 '필'과 '묵', 그리고 '변혁'이라는 키워드로 풀어내보자 했던 이번 전시의 의도를 잘 반영한 대표 작품 소개

#### SECTION 2. 황창배

서양의 브리쉬로 동아시아의 오랜 회화 양식인 비백을 실현했고 더 나아가 한 번의 붓질로 여러 색이 공존하는 신을 고안해 변황창배 특정이 잘 반영된 작품 소개

#### SECTION 3. 황창배

황창배 작가의 1980년대 초 ~80년대 후반의 작업들, 분인화와 민화의 예술형식을 자유자재로 혼합하고 다시 현대적 언어로 풀어낸 작품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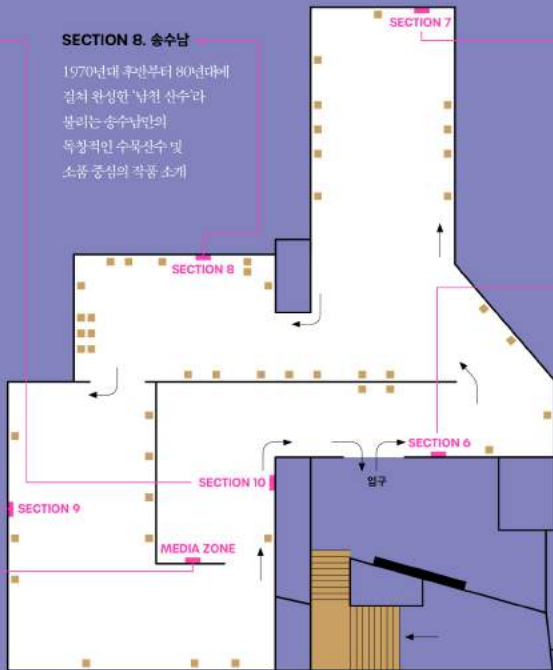
#### SECTION 4. 송수남

단순화된 이미지와 대칭적 구도, 웅결의 리듬감, 발묵에 의한 추상적 공간, 반복적인 필획, 한지에 스며드는 수묵의 변질 등 막이 갖는 다양한 재질의 속성과 형식성을 실현한 송수남 작가의 대표 작품 소개

#### SECTION 5. 송수남-황창배

표현은 단맛지만 다디르고자 하는 분질은 다르지 않았던, 두 화가의 예술적 완성 시기인 1990년대 작품 소개

### B1



#### SECTION 10. 오래 기억 될 송수남과 황창배 이야기

관람객들의 생각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공간  
 \* 전시 관람 후 남겨진 이리문의 생각은 전시 기간 중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합니다.

#### SECTION 8. 송수남

19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에 걸쳐 완성된 '남칠 산수화' 불리는 송수남만의 독창적인 수묵산수 및 소품 중심의 작품 소개

#### SECTION 7

#### SECTION 7. 황창배

황창배 작가의 대담한 작품 세계를 보여주는, 민그림 없이 즉흥으로 구사하여 미술계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킨 작품 소개

#### SECTION 9. 황창배

작가 스스로 '안타에서 내리막 길로 자동차를 타고 내려오는 걸 참을 수 없는 상황'과 같다고 밝혔던, 원구와 영원에서 그 예를 찾기 어려운 황창배 작가만의 독특한 작품 세계 소개

#### SECTION 6. 송수남

수묵화의 현대성과 전통성의 재민전을 위한 여정 속에서 문인화의 현대화로 실현된 송수남 작가의 '빛의 놀림' 시리즈 소개

#### MEDIA ZONE

송수남, 황창배의 매체와 작품을 테마로 인터랙티브 케인팅을 구현한 미디어 아티스트 강태은 작가 작품 소개

현대 수묵의 두 시선

# 筆墨變革



# 필묵변혁

몽무남 | 양항배

2023.11.28 TUE  
 2024.1.14 SUN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전관  
 SEJONGMUSEUM OF ART

# 현대 수묵의 두 시선 필묵변혁 몽무남 | 황창배

‘한국화의 이단아’ 남천 송수남과

‘한국 화단의 테러리스트’ 소장 황창배로 볼런

두 작가의 여정은 서로 다르게 빛나면서도

‘한국적 아름다움과 이미지의 본질을 탐구했다’는

뚜렷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 소개하는 80여 점의 작품들을 통해

두 작가가 필(筆)과 묵(墨)으로

전통, 파격, 현대를 가로지르고 또 아우르며

새로운 한국화의 지평을 창조한 순간들을

시각적 울림으로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 송수남의 작품세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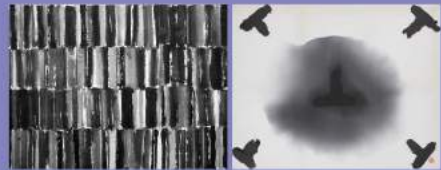
‘가장 한국적이면서 현대적인 한국화의 정립’은 송수남이 평생 지향한 목표였다. <빛의 놀림> 연작은 그 궁극적 지향점이 구현된, 그의 긴 여정의 정점에 속하는 작업이다. 수묵화의 현대성과 전통성의 계보전이라는 이중적 과제 속에서 <빛의 놀림>은 문인화의 현대화로 실험된 대표작인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물이 빛이러면 먹은 어둠이다. 빛과 어둠이 만나서 새롭게 탄생하는 우주. 그 공간에 내가 뛰어들려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이다. 눈을 감고 선 하나를 갖는다.’

<빛의 놀림> 연작은 캔버스 위에 한지를 붙여 바탕을 만들고 자유로운 빛의 놀림을 펼치는 작업 중 어떤 특정한 대상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사용하는 물감, 즉 먹, 종이 혹은 캔버스를 활용, 수묵운필의 행위 결과로서의 추상이라는 점에서 1980~1990년대 미술계에 불어닥친 달 전풍 실험의 일환이기도 하다. 내의 개념과 기법은 문인화, 재료는 지필묵 그리고 조형적 형식은 서구 추상미술을 따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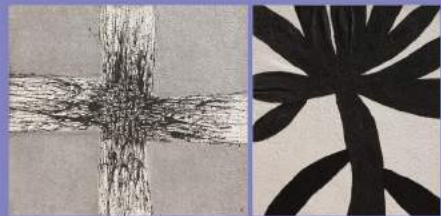
‘수묵은 잊혀지지 않는다. 더욱 분별하지 않는다. 수묵화는 장식하지 않는다. 수묵화는 꾸미지 않는다. 수묵은 그 자체가 자연이다.’

‘남천 산수’라 불리는 송수남만의 독창적인 수묵산수를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대에 걸쳐 완성했다. 단순한 형태, 간결한 구성, 민음 사용한 수평 구도, 강한 먹빛의 대비, 먹의 농담 변화를 통한 원근감은 단순 풍경이나 관념적 산수가 아닌 독특한 조형 세계를 만들어 낸다. 남천 수묵의 또다른 경수를 보여주는 산수 작품도 선보인다.



빛의 놀림  
1991년 | 한지에 종이 | 134x123cm | 한국미술관

빛의 놀림  
1996년 | 한지에 한지, 먹 | 130.5x114.2cm | 국립현대미술관



빛의 놀림  
2007년 | 대나무, 먹 | 206x234cm | 국립현대미술관

빛의 놀림  
2008년 | 대나무, 먹 | 215x207cm | 국립현대미술관



산수  
1975년 | 한지에 수묵화재 | 142x126cm | 세종미술관

## 황창배의 작품세계

‘황창배 심드름’을 일으킨 동시에 ‘한국화단의 테러리스트’로 불린 화가. 황창배 작품의 기본 토대는 서예와 전적으로 다져진, 정도를 어긋난 법이 없었던 필과 묵이었다. 본인의 작품이 정형화되는 것을 싫어했던 그는 그림은 ‘머리와 손으로 그리지 않고 가슴으로 쏟아내는 것’이라며 대담한 형식과 기법 밖의 재료들로 한국화를 넘어 회화라는 경계까지 확장했다. 동양화 고유의 재료를 유지하면서 내용, 형식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거나 형식은 유지하되 수묵 기조와 모티브 사용을 다르게 전개하는 등 기존의 시도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변혁이었다. 황창배가 한국화단에 일으킨 파격은 정제되고 변방으로 밀려난 한국화의 지평을 바꾸어 놓은 것이다.

황창배의 작품 추이 단계는 세 시기로 나누어질 수 있다.

1980년대 초~80년대 후반의 작업들은 문인화와 민화의 예술형식을 자유자재로 혼합하고 다시 현대적 언어로 풀어낸다. 경계를 깨트리는 작업의 시작이다.



무제  
1986년 | 한지에 먹, 물감 | 145x110cm | 개인소장

무제  
1988년 | 한지에 문방재료 | 122x101cm | 개인소장

‘바로 보고 바로 감을 자아내는, 머리와 손으로 그리지 않고 가슴으로 쏟아내는 그림’

1980년대 후~90년대 초반은 다양한 재료를 수묵, 색면의 강조가 독특한 평면 인식으로 발전되는 시기였다. 해학적인 드로잉과 판정, 생애, 사회 문제를 비판하는 요소와 함께 화면을 지배한다.



무제  
1991년 | 한지에 문방재료 | 128x162cm | 개인소장

무제  
1994년 | 한지에 문방재료 | 138x107cm | 개인소장

‘너무 정제된 그림은 재미가 없고 아슬아슬하게 경계를 넘을 듯 맞닿는 것이 재미가 있다’

1990년대 초~90년대 말은 빛 이외에 나이프나 심지어 손으로 그리는 행위의 연속이었다. 아이들의 그림 같기도, 뉴욕 낙지파 화가들의 작품을 연상시키기도 하는 대담한 필획과 이미지의 해체와 재구성을 보이며 회화라는 시계마저도 뛰어들었다.



무제  
1996년 | 한지에 문방재료 | 102x138cm | 개인소장

## 송수남(宋秀南, Song Soo Nam, 1938~2013)



칠하면  
더 부속하여  
철하고도 철한다  
바우면  
중간해칠 것을  
부경없이 제우기만 한다  
연재나 비움을 알가

남천 송수남 작가는 1938년 전북 전주에서 태어나 홍익대 서양화과에 입학했다. 4학년 때 동양화과로 옮긴 이후 스웨덴 국립 동양미술관 초대 개인전을 비롯해 30여 회의 개인전, 동경국제비엔날레, 상파울로 비엔날레, 타이베이 국제현대미술대전 등 국제전에 참여하며 한국화로서 왕성한 활동을 펼쳤다. 1975년부터 2004년까지 모교인 홍익대 동양화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후학을 양성했고 홍익대 박물관 관장, 서울미술대전 운영위원, 동아미술계 심사위원, 중앙미술대전 심사위원 등을 역임했다. 전통 수묵화에 대한 새로운 자각을 토대로 현대적 조형성을 추구하며 한국화의 새로운 가능성은 모색한 작가라는 평가를 받는다. 지나친 상업주의, 복고주의와 권위주의로 한국화의 위기를 맞은 1970년대 말 ‘새로운 한국화의 정립’을 기치로 일어난 ‘현대 수묵화 운동’을 주도하기도 했다.

## 황창배(黃昌培, Hwang Chang Bae, 1947~2001)



전통은  
새로운 것을  
발전하기 위한 것이지  
승배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소장 황창배 작가는 1947년 서울에서 태어나 경복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회화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했다. 원전 장우성에게 동양화를, 최중 이기우에게 전각과 서예를 사사하고, 일창선 선생으로부터 한학과 미술사를 연구하였고, 1978년 한국화 최초로 국전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1997년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 ‘북한 문화유산 조사단’ 단원으로 북한을 방문했다. 경희대와 이화여대, 동덕여대 등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으며, 동심방 회랑, 밀라노 카루소 그로베티 화랑 등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2001년 담도암으로 작고한 그는 한국화의 경계를 확장한 선구자로 평가받는다. ‘제조명예야 할 한국화가’ 1위로 꼽히며 있다.